

벤처기업대상, 창업대전 수상에 빛나는 영광의 얼굴들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대표

〈벤처기업대상 은탑산업훈장〉 세계 1등을 향한 질주, 주성엔지니어링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주성엔지니어링은 세계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시장의 20%를 점유한 탄실한 기업이다. 창업 이후 넓고 평탄한 길보다는 어렵고 험한 길을 걸어온 시간이 더 많지만, 꾸준히 쌓아올린 신뢰를 무기 삼아 위기를 극복해 왔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 큰 도약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황철주 대표는 주성엔지니어링이 세계 속의 1등 기업으로 등극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믿고 있다. 주성엔지니어링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끌어준 사회적 환경, 고객, 투자자, 직원, 직원 가족들이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주성엔지니어링의 위치나 기술력, 매출 등은 어느 것 하나 손색 없는 기업으로 꼽힌다. 벤처기업대상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게 된 것은 주성엔지니어링의 세계 최고 도전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이번 수상은 많은 분들의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와 직원들 모두에게 영광스러운 상인 동시에 큰 부담이기도 합니다. 창업 시절의 마음으로 돌아가 항상 겸허하게 매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황철주 대표는 10년 전의 주성엔지니어링과 같은 처지의 벤처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어렵게 창업한 벤처기업들이 크게 성장하도록 밑거름이 되어주겠다는 것이다. 장학사업을 비롯해 사회공헌에도 힘쓰고 있는 주성엔지니어링의 도량이야말로 세계 1등 기업을 꿈꾸는 수많은 그릇임을 증명해 준다.



메디포스트 양윤선 대표

〈벤처기업대상 동탑산업훈장〉 생명공학계의 블록버스터, 메디포스트

국내 제대혈은행 산업을 선도하며 난치병 치료의 신기원으로 평가받는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메디포스트. 지난 2000년 창업 이래 생명공학 벤처기업의 대명사로 군림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지난 7월 코스닥에 상장된 이후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제대혈의 무한 가능성에 매료돼 의사에서 CEO로 변신한 양윤선 대표는 메디포스트가 보유한 독보적인 기술력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다. 국내 최고의 의료전문인력과 최첨단 장비가 바로 기술력의 비결이다. 제대혈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제고되면서 향후 전망도 무척 밝다. 26명의 연구진들로 구성된 생명공학연 구소에서 개발한 관절염치료제, 뼈손상치료제, 암치료제 등 줄기세포치료제는 또 하나의 역작이다.

“고객의 건강과 회사 발전을 위해 쏟았던 전 직원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쁩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 칠 때도 있었지만 고객 여러분의 변함없는 믿음과 기대를 생각하며 이겨냈습니다. 경쟁력 있는 바이오기업이 되어 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벤처기업대상 동탑산업훈장 수상을 계기로 그동안의 노력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메디포스트는 현재까지의 성과를 발판삼아 세계적인 바이오기업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21세기 국가경제를 이끌 바이오산업의 중심축으로 활약할 메디포스트의 화려한 비상이 기다려진다.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대표, 메디포스트 양윤선 대표, 피에스아이에이 박상일 대표, 코리아엘텍 송준호 대표

벤처주간의 화려한 막이 올랐다. 올해는 '벤처코리아2005'와 '대한민국창업대전'이 함께 열려 축제 분위기를 한껏 돋운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4명의 CEO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피에스아이에이 박상일 대표

〈벤처기업대상 철탑산업훈장〉 나노기술시대의 주역, 피에스아이에이

피에스아이에이는 나노기술시대의 첨병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 중이다. 물질의 모양과 성질을 원자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원자현미경이 없었다면 나노기술 발달도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명 원자현미경 전문가로 통하는 박상일 대표는 미국에서 한 차례 벤처창업 성공사례를 남긴 뒤, 1997년 한국에 들어와 피에스아이에이를 설립했다. 그리고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국내 원자현미경 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는 등 변화를 이끌어 왔다. NASA연구소에까지 제품을 공급할 정도로 발군의 실력이 검증된 것은 물론이다.

지난 1~2년 사이 유난히 상복이 많았던 박상일 대표이지만 벤처기업대상 철탑산업훈장의 의미는 각별하다. "모든 박수는 직원들의 몫이 아닐까 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노력해 온 직원들 덕분에 오늘의 피에스아이에이가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인류의 과학기술사에 발자취를 남길 만한 큰 결실을 거두고, 모범이 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가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선진국 제품을 능가할 만큼 우수한 기술력은 피에스아이에이의 자산인 동시에 원동력이다. 또한 나노기술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은 이들의 행보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있다. 나노 기술시대의 명실상부한 주역으로서, 과학기술사에 큰 획을 긋게 될 피에스아이에이의 희망찬 내일을 고대한다.



코리아엘텍 송준호 대표

〈대한민국창업대전 대상〉 기계제조 분야 다크호스, 코리아엘텍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럽습니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순수 기계제조 분야 벤처기업으로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더욱 기쁩니다."

창업대전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코리아엘텍의 송준호 대표는 창업 2년차의 패기 넘치는 벤처 기업 CEO이다. MRL 엘리베이터용 박형 권상기를 개발해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주인공. 아직 눈에 띄는 매출실적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기술력만큼은 자신 있기에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담보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코리아엘텍의 도전정신과 혁신기술은 창업대전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게 된 요인이기도 하다. 기존 제품보다 10cm가량 두께가 얇은 엘리베이터용 권상기의 우수성이 호평을 받았다. 슬림한 구조를 갖춰 엘리베이터 선로 옆에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강점으로 꼽힌다. 그 외에도 에너지효율 30% 개선, 최상의 승차감 구현, 부품 보수성 향상, 경제적인 가격, 신속한 고객지원에 앞세운 승부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 엘리베이터용 동전동기를 개발해온 송대표가 노하우를 살려 이루어낸 산물이다.

무슨 일에도 '솔직하자'는 모토로 투명경영, 정도경영의 길을 걸겠노라 다짐하는 송준호 대표. 2008년쯤 국내 업계 1위 자리를 꿰차고,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기업으로 코리아엘텍을 키워내겠다는 그의 포부가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